새로운 분위기의 9홀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27홀 개장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09 CJ 마구마구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각 부문 수상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최희섭,이택근, 김현수, 나지완, 강봉규, 이대호, 홍성흔, 박용택,손시헌,정근우 아버지, 김상현, 로페즈 대리수상 황병일 코치, 김상훈. /연합뉴스

호랑이 4형제 '황금장갑' 품다

골든글러브 시상식

로페즈·김상훈·최희섭·김상현 수상 영예

나지완 골든포토상…두산 김현수 최다득표

KIA 타이거즈의 2009년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KIA는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로페즈(투수)·김상훈(포수)·최희섭(1루수)·김상현(3루수)등 4명의 골든글러브 수상자를 배출했다.

올 시즌 1·2군 올스타, 한국시리즈, 정규시즌 MVP까지 모두 싹쓸이하며 'MVP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던 KIA는 한해의 결과를 수확하는 골든글러브까지 독식하며 2009시즌을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지난 2006년 이용규(외야수)이후 '황금장갑'과 인연이 없었던 KIA는 12년만의 정규시즌·한국시리즈 우승의 기세를 몰아 최다 골든글러브 수상팀에 등극했다. 두산이 2명의 수상자를 내 KIA의 뒤를 이었고, 삼성과 한화는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정규시즌 MVP, 올해의 선수, 일구대상 최고 타자상에 빛나는 김상현은 골든글러브까지 거머쥐면서 2009 프로야구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오랜 무명 생활을 했던 김상현은 2군 선수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 뒤 "뒷바라지해준 아내에게 감사하며 또한 어제 돌아가신 할머니께 상을 바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팬들과의 약속이었던 'V10'을 이루어내서 더욱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밝힌 최희섭은 "현재의 나를 있게 한 전국의 산에게 고맙다. 산에 올라가서 술 한잔 하고 싶다"고 언급해 식장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KIA 안방을 지키며 우승을 이끈 주장 김상훈은 4차례 골든 글러브 수상을 기록한 장채근에 이어 팀에서 두 번째로 골든글러브를 받은 포수가 됐다.

황병일 코치는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투수 로페즈의 대리수상자 역할을 담당했다.

로페즈는 이날 '황금장갑'을 거머쥐며 외국인 투수로는 지난 2007년 두산 리오스 이후 두 번째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한국시리즈 MVP 나지완도 한국스포츠사진기자회에서 선정한 '골든포토상'의 주인공으로 시상식 무대에 오르는 등 이날 스포트라이트는 KIA에 집중됐다.

안치홍(2루수)·이현곤(유격수)·김원섭(외야수) 등은 후보로 자리를 함께 했고, KIA 사령탑으로 12년만의 우승을 일군 조범현 감독도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식장을 찾았다.

한편 삼성의 강봉규는 '페어플레이상'을 롯데 이대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수여하는 '사랑의 골든글러브상'을 받았다.

이대호는 2006년부터 자신의 팬클럽 함께 독거 노인을 위한 연탄 배달행사를 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지명타자부문 수장자인 롯데 홍성흔은 가수 비의 '레이니즘'에 맞춰 멋진 댄스 실력을 선보이며 행사 분위기를 한껏 달구었다.

◆각 부문별 골든글러브 수상자

◇투수 : 로페즈(KIA) ◇포수 : 김상훈(KIA) ◇1루수 : 최희섭(KIA) ◇2루수 : 정근우(SK) ◇3루수 : 김상현(KIA) ◇유격수 : 손시헌(두산) ◇외야수 : 김현수(두산)·박용택(LG)·이택근(히어로즈) ◇지명타자:홍성흔(롯데)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손영민 '나도 대박'

109.3% 인상…연봉 9천만원

박기남, 5천5백만원 재계약

프로야구 KIA타이거즈는 이번 시즌 중간계투로 활약한 투수 손영민(22)과 지난해보다 4천700만원(109.3%) 오른 연봉 9천만원에 재계약했다.

2006년 데뷔한 손영민은 이번 시즌 5승2패1세이브에 평균자책점 2.97을 작성하며 불펜진의 중심 투수로 뛰었다.

또 KIA는 내야수 박기남과는 2천만원 인상된 5천500만원에 계약을 마쳐 51.8%의 재계약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

김연아 세계랭킹 1위 복귀

올해 출전한 모든 국제대회를 석권하며 '피겨 여제'로 자리매김한 김연아(19·고려대)가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여자 싱글 세계랭킹 1위 자리를 되찾았다.

ISU가 11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여자싱글 랭킹에 따르면 김연아는 랭킹 포인트 4천360점으로 카롤리나 코스트너(이탈리아·4천111점)를 2위로 끌어내리고 다시 1위로 올라섰다.

김연아는 지난달 17일 대회 출전 횟수가 적은 탓에 코스트너에게 1위 자리를 내준 지 28일 만에 정상에 복귀해 세계랭킹 1위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다.

올 시즌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에 실패하는 등 부진했던 아사다 마오(일본)는 3천779점으로 지난달과 변함없이 3위를 지켰고, 캐나다의 조애니 로셰트(3천539점)가 4위로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화촉

▲김해문씨 장남 윤형군 황인연(제주아트랜드 대표)씨 차녀 세영양=12일(토) 낮 12시 광주공항 옆 웨딩홀 화이트하우스 3층(대연회장)

▲이봉순씨 삼남 김창권군 정석채(전 광주일보 판매국)·이순님씨 딸 아양=12일(토) 오후 1시20분 상무지구 예술의 전당 2층(로즈마리홀)

▲신인재(광주동부경찰서)씨 아들 경원군 신운식(광주시 북구의원)씨 딸 수정양=12일(토) 오후 1시 금호생명빌딩 30층(아시아나홀)

▲나동선·최성지씨 차남 경수군 김원규·문삼님씨 차녀 도숙양=12일(토) 오전 11시 광주 경복궁웨딩컨벤션 2층(미소홀)

▲김종창·김여지씨 차남 호중군 박봉식(광주지방국세청 과장)·이정희씨 장녀 경혜양=13일(일) 낮 12시 서울가든호텔 2층(무궁화홀)

▲서상윤·임연화씨 장남 인호군 김재선·서유정씨 장녀 지현양=13일(일) 오전 11시50분 광주 경복궁웨딩컨벤션 1층(경복궁홀) 부음

부음

▲정삼린씨 별세 고용석(광주일보 중앙지국장)·흥석(광주일보 우산지국장)·훈석(동양생명)·갑순·순심·채영씨 모친상=발인 15일(화) 그린장례식장. 062-250-4455.

▲김영표(전 장흥군 교육장)씨 별세 윤희·송희(해남 화산초)·선희·제헌(신원)씨 부친상 고재영(세아베스틸)·한장오(해남교육청)·찰스 매터매트(캐나다 거주)씨 빙부상 정민희씨 시부상=발인 13일(일) 화순전남대병원 장례식장. 061-379-7433.

▲박효님씨 별세 임동열(전 전남공업고)·동찬·동남·명숙·영자·정숙·순임(조대병원)씨 모친상= 발인 13일(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남진영씨 별세 철희(광주일보 강진주재기자)·종희(개인사업)·경희(통신업)씨 부친상 이철승(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씨 빙부상=발인 12일(토) 강진 중앙장례식장. 061-433-2300.

▲조성식씨 별세 상호·계은씨 부친상=발인 12일(토)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황기주씨 별세 이종·의완·의춘·의자·순자·명희씨 부친상=발인 12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박찬규씨 별세 기영·지혜·경선·정원씨 부친상=발인 12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김덕순씨 별세 조찬윤·찬석·혜영씨 모친상=발인 12일(토) 학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